

우리를 변화시키는 구원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래아의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
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그리고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
에 초대를 받았다. 마침 포도주가 모자라서 예수의 어머니가 그분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그러자] 예수께서는 어머니
에게 “부인, 부인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어머니는 시종꾼들에게 “그
무엇이든지 당신들에게 이르는 대로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례를 위해 돌로 만든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다. 그 물독들은 각각 두세 동이씩 담을 만하였다. 예수께서는 시
종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우시오” 하고 이르셨다. 그래서 그들이 독
마다 가득히 채웠다. 이윽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 주
관자에게 가져가시오” 하고 이르셨다. 곧 그들은 가져갔다. 잔치 주관
자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았다. 그는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
했지만 물을 떠 온 시종꾼들은 알고 있었다. 잔치 주관자는 신랑을 불
러 말하였다. “누구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만 못한 것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좋은 포도주를 이제까지
보관하고 있었군요.” 이렇게 예수께서는 갈릴래아 가나에서 처음으로
표징(이적)을 행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그분을 믿었다(요한 2:1-11).

거룩함의 참다운 의미

거룩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짓는 행위는 어쩌면 인간 심성 깊숙한 곳에 뿌리를 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된 관습일런지 모른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무언가 나와는 거리가 먼 것, 나와는 상관 없이 있는 그 어떤 것을 '거룩함'이라는 이미지와 연결시킨다. 그래서 '성당'이나 '교회' 혹은 '대웅전'에 들어서면 무언가 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그 어떤 분 혹은 그 무엇이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인상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끄러운 심정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과연 거룩함이란 이처럼 나와는 진정으로 거리가 먼 것일까?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한 가지 갈등을 살펴보자. 우리는 무언가 모르게 울긋불긋한 것을 좋아한다. 물론 고전적 감각을 그리워해서 흑백 영화를 가끔 즐겨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흑백 영화보다는 충전연색 영화를 더 좋아한다. 미지근한 그 무엇보다도 화끈한 그 무엇을 더 좋아하기에 폭력이나 성적 묘사가 더 적나라하게 등장하는 영화나 연속극을 더 좋아한다. 신문을 읽으면서도 매일 무언가 놀라게 해줄 강력한 사건을 무심코 찾게 되기도 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짜릿하고 자극적이고 강력한 그 무엇을 늘 찾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늘 이상야릇하고 신기한 그 무엇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하기에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늘 그러한 신비적 체험만을 염두에 둔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과연 그러한 신기한 현상 속

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실까 하고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무언가 신기하고 이상야릇하고 강력한 그 무엇을 좋아하면서도, 반면에 자신의 삶에서는 어떤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기도 한다. 일종의 돼지 같은 근성이 있다고나 할까? 한편으로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삶의 어떤 모습을 의식하면서도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러저럭 지내는 모습이 단편적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것은 정말 모순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기적을 믿는다. 예수님의 현존과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키기에, 이 변화가 두려워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신기한 기적과 같은 이상한 현상들에 정신이 팔려 자기 내면의 실상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란 분명히 하느님의 현존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이 거룩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성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둔다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공동번역 마태 28,20)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공동번역 요한 1,14) 임마누엘의 신비이다(마태 1,23). 하느님께서 기적과 같은 이상

한 현상이나 기이한 사건들 속에, 혹은 특별히 유별난 장소에 현존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가장 밀접히 현존해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거룩함이란 이상야릇하고 유별난 그 무엇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가장 단순하기에 가장 건강한 그 무엇을 이르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 참다운 거룩함이란 평범함 가운데 있는 것이기에, 나의 가장 일상적인 삶 속에 깃들어 있는 지극히 평범한 하느님의 현존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예수님의 현존이 가져오는 변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요한 2,1-11)는 예수님의 말씀과 현존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변화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이 이야기의 몇몇 장면들을 상징화시켜 보자. 잔칫집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와 계셨다. 그리고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제 잔치는 파할 시간이 된 것일까? 이를 알아차린 성모님께서는 예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알리셨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일상의 삶에서 마치 포도주가 다 떨어진 잔칫집처럼, 흥이 없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저 매일 매일 되풀이되어 가는 삶 속에서 아무런 활력도 생기도 느끼지 못하면서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탄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당신의 말씀에 의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물과 같이 맹송맹송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사를 당신의 현존에 의해 흥과 생기가 넘치는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의미할 것이다. 즉 예수님의 말씀과 당신의 현존에 의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되풀이되는 단조롭고 활력 없이 메마른 생활이 축축하고 생기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담고 있는 의미일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행위, 그분의 현존은 그 자체로써 구원적이며 해방적이다. 그렇기에 이는 바로 새로운 창조의 과정인 것이다. 복음사가 요한의 구성에 의하면 가나 혼인잔치는 일곱 번째 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창조의 모습이

다. 창세기의 여러 상징들이 여섯 개의 물독과 그 안에 채워진 물 등의 상징들을 통해 이 곳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복음서에서 엿보이는 예수님의 일상적인 삶

예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느님이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사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셨는지를 복음서를 통해 몇 가지 살펴보자.

예수께서는 필요한 만큼의 사회생활을 즐기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친구들을 사귀셨으며, 그들과 더불어 이곳 저곳 구경도 다니셨고, 잔칫집뿐 아니라 이런저런 이들의 저녁식사 초대에도 즐겨 응하시며 다니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사람들과 맺고 나누는 관계 안에서 그 관계의 다양한 양상들을 체험하시면서 그 안에 화해의 기운을 가져오시어 참다운 친교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은 관계를 통해서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 하느님께서는 관계 안에서 현존하는 분이시기에,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누는 관계들 속에서 특별히 당신의 현존을 깊이 드러내신다. 그 관계들 속에서 기뻐하시거나 슬퍼하시며, 흐뭇해 하시거나 아파하시는 분이시다. 관계란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분은 공동체 안에 현존해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그

분께서는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 필요한 기여를 하신 분이셨다.

예수께서는 기존 체제의 보물을 인정하시면서도 또한 예언적으로 도전하신 분이기도 하셨다. 그분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 즉 구약성서를 충분히 알고 이해하신 분이셨으며, 이런저런 자리에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실 수 있었던 분이셨다. 그분은 당신이 속한 종교 전통에 대해 전혀 무식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의 핵심은 물론 그 근본적 약점까지도 깊이 이해하셔서 이런저런 기회에 그것들을 표현하시기도 하셨다. 그분은 기존 질서 안에서 소위 '품잡는 사람들' 혹은 '지도층 인사들'의 위선적 모습들을 향해서 도전하기도 하셨다. 바로 이러한 점이 그분으로 하여금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배척받게 만든 요인이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고쳐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마르 10.51) 하시며, 당신의 현존 앞에서 우리의 바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지닌 병, 신체적인 병뿐 아니라 마음과 관계 안에서 발생한 모든 병들을 고쳐 주시기 위해 애쓰신다. 우리의 약점과 죄스러움을 그분께 보여드리게 되면 그분께서는 측은한 마음으로 그 아픔들을 어루만져 감싸주시며 치유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점 혹은 죄스러움이 당신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로마 8.35 참조).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품는다'는 말도 있듯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약점과 죄스러움을 품으면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더할 수 없이 귀중한 보물로 변화된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앓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부르러 왔습니다”(루가 5.31-32)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약점과 죄스러움으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시면서 당신과의 새로운 관계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배불리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허기진 군중을 보시고 “군중이 측은합니다. 그들이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입니다. 나는 그들을 굶주린 채 헤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길에서 지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마태 15.32) 하시며 먹을 양식을 베푸셨다.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줄 물은 오히려 그 사람 안에서 샘이 되고 그 물은 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요한 4.14) 하시며 진정한 생명의 물로 우리 마음의 갈증을 채워 주시는 분이기도 하다. 참다운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이신(요한 14.6 참조) 예수께서는 참다운 진리와 영원한 삶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채워 주신다.

예수님의 사명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엿볼 수 있듯이, 예수께서는 모든 이

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시며,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 주시기 위해 항상 새롭게 강생하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서는 예수님의 지상 삶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예수께서는 온 갈릴래아를 돌아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도는)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 주셨다” (마태 4,23).

예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사명, 백성들을 가르치고 일깨우는 왕적 사명, 그리고 병을 고쳐 주고 아픔을 감싸 주는 사제적 사명을 수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 즉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그분의 구체적 현존은 구원적이고 해방적인 현존이기에 늘 새로운 창조를 우리 가운데 불러 일으킨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다만 그분의 사랑스런 현존이 아무런 요구 없이 묵묵히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따름이다. 우리가 진정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사랑은 변화를 강요하지 않고, 다만 변화시킬 따름이기 때문이다.

묵상 성구

요한 2,1-11

아직 제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 요한 6,1-15 예수께서는 빵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자리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 루가 7,1-10 내가 이스라엘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 마르 2,23-28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겼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 마태 23,1-19 사실 여러분의 선생은 한 분이요 여러분은 모두 형제들입니다.
- 요한 2,13-22 이 성전을 허무시오.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소.

생활

1.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일상의 평범 속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십니까?
2. 일상에서 만나는 하느님 체험이 내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상에서의 하느님 현존 체험이 나의 삶에 충분히 도전적입니까?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오시자 백성이 모두
 그분에게로 몰려왔고 그분은 앉으시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때에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데려와
 가운데 세워 놓고 그분에게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서 모세는 이런 여자들은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얻으려고 그분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예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시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러자 듣고 있던
 사람들은 나이 많은 이들을 비롯하여 하나하나 떠나가 버리고
 예수만 남게 되었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있었다.
 그 때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여자에게 "부인, 그들이 어디 있소?
 아무도 당신을 단죄하지 않았지요?"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가 "아무도 (안했습니다), 주님"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당신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가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요한 8,2-11).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기 위한 자궁 속의 존재

‘여인의 자궁’이라는 이미지는 나에게 많은 의미를 전해 준다. 나의 개인소명 혹은 주님의 부르심을 상기시켜 주는 성서구절도 역시 이 ‘자궁’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 “너희는 근심에 잠길지라도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즈음에는 걱정이 태산 같다. 진통을 겪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에 그 진통을 잊어버리게 된다”(공동번역 요한 16,20-21). 부모님이 나누는 사랑의 맥락 속에서 나의 생명이 형성되어 성장하기 시작한 곳이 어머니의 자궁이었듯이, 생명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구체적인 열매로서 바로 이 자궁에서 시작된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설화의 한 장면을 상기해 보자: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낱알을 얻어 먹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창세 3,19). 흙은 모든 것을 받아들여 수용하는 자질을 지니고 있으며, 그 안에 생명을 움트게 한다. 그래서 성서는 “마침 땅에서 물이 솟아 온 땅을 적시자 야훼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창세 2,7) 하며 인간 존재의 본질을 흙과 연결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지구는 흙의 자궁으로서 우리의 생명이 움터나고 성장하고 되돌아가는 존재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인간의 길을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하여 걷는 순례의 길로 묘사하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빔어져 결국에는

무덤에 이르는”(womb-to-tomb) 여정으로 상징화시켜 묘사하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늘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갈망하는 자궁 속의 존재이다. 때로는 나를 휘어잡은 힘겨운 고민거리들이나 갈등들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향한 갈구를 상기시켜 주는 또 하나의 자궁일런지도 모른다. 발버둥은 비록 주어진 상황을 거부하려 드는 몸부림이지만,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는 그 순간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인간에게 부여된 근본적인 자질은 ‘수용성’에 있는 것일까? 어쩌면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1고린 13.7) 사랑의 자질이 우리가 지녀야 하는 근본 소명일런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탄생시킨 성모님의 자궁

루가복음의 성모영보 장면은 늘 새롭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마리아! 당신은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습니다. 두고 보시오. 당신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시오. 그는 크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옥좌를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영원히 야곱의 가문 위에 군림할 것이며 그의 왕권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루가 1.30-33). 당신의 자궁 안에 예수님을 잉태하여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셨기에 성모님은 바로 교회의 원형이시며

모태이시다.

교회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이 세상에 그 말씀을 전해 주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신앙 공동체이다. 루가 복음사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당신을 배신 태와 당신에게 젖먹인 가슴은 복됩니다!” 하는 한 여인의 감탄을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복됩니다!”(루가 11.27-28)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명한다. ‘당신을 배신 태’라는 상징 속에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담아 내고, ‘젖먹인 가슴’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실천되는 모습을 묘사한다. 어머니와 자녀라는 인간적인 관계가 하느님과 교회 혹은 하느님과 인간이라는 신앙의 관계로 성모님 안에서 완전히 상징화된다. 이러한 관계의 완전한 예가 바로 성모님이시다.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각자는 모두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잉태하고(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젖을 먹여야 하는(그 말씀을 지키는) 소명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과 여인들

신약성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어울리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눈여겨 보면, 특별히 여인들과 자유롭게 친교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분은 유대인 으로서는 일반상식적 관습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실 수도 있었고(요한 4.1-42),

친구집에 놀러 가 그 친구의 장모에게서 대접받으실 줄도 아셨으며(마르 1,29-31), 특별히 마르타와 마리아 자매를 향해서는 유난히도 가까운 친구로서의 정을 지니시기도 하셨다(루가 10,38-42; 요한 11,1-12,8). 루가복음은 특별하게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동참하며 도움을 준 여인들을 직접 언급한다: “예수께서는 고을과 촌락을 옮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도 함께 다녔다. 그리고 악령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낫게 된 여자들도 더러 있었는데, 곧 귀신 일곱이 떨어져 나간 적이 있는 막달라 여자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신하 쿠자의 아내인 요안나, 그리고 수산나, 그 밖에 다른 여러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네 재물로 예수 일행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루가 8,1-3).

예수께서는 평범한 여인들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소외된 여인들과도 깊은 친교를 나누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과 소외당한 이들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는 분이셨기에 당시 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지위에 대해 깊이 동정하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기에 더욱 그들과 친밀하게 정을 나누며 그들 편에 서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인들을 하느님의 사랑스런 한 인격체로서 대하며 깊은 사랑과 존경을 지니셨을 뿐 아니라, ‘여성다움’을 깊이 이해하시었고, 어머니로서의 정 혹은 친밀한 사랑의 정을 고귀하고 가치 있게 받아들이신 분이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의 예

특히 죄인들과 친교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새롭게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 인간들은 아주 다양한 동기와 이유들에 의해서 함께 모여 일치하기도 하고 싸우며 흩어지기도 한다.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함께 모이기도 하지만, 또 그 죄스러운 요소에 의해서 갈라져 싸우고 죽이기도 한다. 사랑이라는 상징 역시 때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지만, 사랑이 요구하는 엄청난 투신과 희생은 오히려 때로는 공동체를 흩뜨려버릴 것만 같은 인상을 보여 주기도 한다.

한 예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지금 그 자리에 둘러 있는 이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누군가를 비판하고 단죄하고자 하는 공통거리가 이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한가운데 서 있는 여인의 가련한 신세는 오히려 누군가를 단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 드는 인간 심리의 가증한 독소를 더 잘 엿보이게 한다.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 살펴보면 얼마나 자주 우리도 그 누군가를 홍보고 단죄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쑥덕거리며 열을 올리고 있는가!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모습도 있다. 한가운데 서 있는 여인의 곁에 예수께서 묵묵히 서 계신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에 정확히 표현하기 힘들지만, 사람들을 모은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예수였다. 예수를 시험해서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그 죄녀를 예수께 끌고 갔다고 한다. 사랑이라는 가치 역시 사람들을 모은다. 우리 주위의 체험들을 돌이켜 보면 역시 사랑이라는 동기와 가치에 의해서 우리 서로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께서 도전하신다. 아니 사랑이라는 진정한 가치가 우리 마음 속에서 도전의 말을 건네온다: “당신들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시오.” 결국 이 도전은 그릇된 동기에 의해 모여진 사람들을 흩어버린다. 남을 단죄하기 위해 어울려 모여든 사람들 역시 결국 자신의 내면에 엿보이는 모순을 숨길 수는 없다. 사랑이 요구하는 진정한 가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일런지 모른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사랑의 도전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가면서 자신도 역시 죄인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현장범인 간음한 여인의 처지에 동참해서 자신도 역시 돌에 맞아야 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는 못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개방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용기와 수용성에 의해 형성되는 어울림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기반이 된다. 하느님의 자비에 의해 무조건 용서받는 죄인의 마음 속에 교회가 발생한다. 그 안에서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발생하는 것이다. 용서가 있는 곳이야말로 그리스도 공동체가 발생하는 현장이다. 바로 그 곳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희망과 결심이 발생하기에 교회는 바로 진정한 생명의 모태가 되는 것이다.

성숙한 관계.

관계는 성숙하고 발전한다.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가 성숙하면서 결혼에 이르고, 사랑의 구체적 열매인 자녀들과 더불어 가정을 이루듯이, 예수님과 나누는 관계의 성숙은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 공동체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이루는 공동체이기에, 그 용서의 체험이 초대하는 방향으로 그 공동체는 성숙한다. 예를 들어 내가 속한 예수회에서는 오늘을 사는 예수회원들의 신원을 다음과 같이 규

정한다: “예수회원이 됨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면서 이나시오와 같이 예수의 벼으로 부름받았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오늘날 예수의 벼이 됨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투쟁, 즉 신앙의 수호와 신앙에 내포된 정의에 종사함을 의미한다”(예수회 32차 총회 교령 2).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은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용서하며 사랑하도록 부르시는 소명의 소리이다. 용서받는 체험이야말로 진정한 소명 체험이 담긴 체험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죄인이 오히려 남을 더 사랑할 줄 안다는 말이다. “이 여자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적게 용서받는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루가 7,47).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용서받는 체험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내가 정말로 부끄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분 앞에 또 다시 나설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늘 진정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체험으로 깊이 알기 때문이다. 사랑과 용서는 늘 함께 간다. 내가 사랑받고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용서를 베푼다는 것과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묵상 성구

요한 8,2-11 나도 당신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가시오. 그리

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루가 11,27-28 당신을 배신 태와 당신에게 젖먹인 가슴은 복
됩니다!

루가 10,38-42 마리아는 그 좋은 몫을 택했고 그것을 빼앗기
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 4,4-42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루가 7,36-50 적게 용서받는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마르 5,21-43 딸이여,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였소. 평
안히 가시오.

성찰

1.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합니까? 내가 나누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나는 신앙인
답게 화해와 용서를 이루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2. 죄인들이나 천대받고 소외당한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친교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나의 사회관계에 어떤 도전을 제
기하고 있습니까?